

# 北韓의 政治社會化(社會教育)에 關한 研究<sup>1)</sup>

— 「黨 機關紙」分析和 關連하여 —

高 性 俊

## 〈目 次〉

- |                     |                   |
|---------------------|-------------------|
| I 序 言               |                   |
| II 理論的 準據           |                   |
| III 北韓의 政治體系와 政治社會化 | IV 「黨 機關紙」와 政治社會化 |
| 가. 政治社會化의 認識        | 가. 北韓의 新聞政策       |
| 나. 體制正當性과 政治社會化     | 나. 〈로동신문〉分析       |
| 다. 社會動員과 政治社會化      | V 結 言             |

## I 序 言

日帝 36년간에 버금가는 分斷 36년의 時間은 韓半島에 있어 「統合의 危機」(integration crisis)를 慢性化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統合危機의 慢性化는 北韓이라는 또 하나의 異質的인 政治的 實體를 固着시키고 있고 共產主義 體制下에서 태어나 철저한 이데올로기 교육을 받은 새로운 세대의 「社會主義의 人間」그룹이 멀지 않아 北韓 人口의 過半數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北韓政治體系와 새로운 〈社會主義의 人間型〉은 韓半島問題를 規定해주는 重要한 因子로서 作用하고 있다.

이 小考는 이와같은 問題意識을 가지고 南北韓分斷 以後 北韓의 體制構築 強化 및 維持機能을 政治社會化(political socialization)라는 視角에서 透視해보려는 데 있다. 특히 北韓政治體系는 金日成의 個人的 權威에 全的으로 依存하는 철저한 操作的 動員政權이라는 點에 着眼하여 社會教育의 次元에서의 政治社會化의 役割과 機能이 北韓政治體系的 政治過程에 미친 影響을 中心으로 그 흐름을 把握하고자 하는데 研究의 目的이 있다.

※ 이 논문은 1980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

- 1) 원래의 논문제목은 北韓의 社會教育과 言論에 關한 研究이다. 그러나 共產主義體系的 경우 이 〈社會教育〉과 같은 의미에서 〈政治社會化〉란 用語가 더 적절하기에 여기서도 편의상 이 개념을 사용하여 改題하도록 한다.

요컨대 이 論文은 政治社會化란 概念을 기준으로 北韓政治의 一部分이라고 할 社會主義基盤의 造成과 그 体制의 維持, 그에 대한 正當性의 부여, 革命과 建設에 全体 人民의 參與를 위한 社會動員등을 위하여 어떤 過程을 전개하는 가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北韓에서의 政治社會化의 중요한 媒介體의 하나인 「黨 機關紙」인 〈로동신문〉에 대한 分析을 통해 政治體系와 政治社會化의 關係를 照明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研究範圍은 北韓政治體系의 体制正當化와 社會主義 建設을 위한 大衆動員化를 위해 〈새로운 社會主義의 人間〉造型이라는 목적을 가진 北韓에서의 政治社會化가 어떠한 機能을 했으며, 그것이 北韓에서의 政治社會化에 있어 가장 중요한 媒介體이자 政策方針을 나타내는 〈로동신문〉에 어떻게 反映됐는가 라는 두가지 側面에 焦點이 주어지고 있다.

그리고 本 研究에서 사용하는 「政治社會化」란, 社會教育的 意味를 지닌 成人에 대한 政治社會化로 한정하고 있다.

本 研究에서 다루어진 資料는, 北韓政治體系를 30여년간 계속 支配해 온 最高權力者 金日成의 演說과 著作(「김일성 선집」), 그리고 北韓에서 發刊된 〈로동신문〉을 研究對象으로 하고 있다.

다만 〈로동신문〉에 대한 分析은 既存 研究結果에 많이 依存했다. 〈로동신문〉에 대한 記事分析은 韓炳九 教授의 研究를, 〈로동신문〉標語에 대한 分析은 李光宰 教授의 論文을 인용했으며 이를 보완하는 의미로 1980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로동신문〉社說을 主題別로 직접 分析하였다.

## II 理論的 準據

政治社會化에 대한 理論的 論議를 여기서는 편의상 크게 두가지로 구별하여 論하기로 한다. 첫째는 一般的인 理論的 論議로서 政治社會化의 定義, 機能, 過程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共產 政治體系에 있어 政治社會化의 特徵的 現象에 대한 것이다.

먼저 政治社會化(political socialization)에 대하여 Gabriel A. Almond는 〈政治文化로 유도되는 過程(the process of induction into the political culture)〉이라고 규정하고,<sup>2)</sup> Kenneth P. Langton은 〈각 個人이 社會의 多様な 媒介體를 통하여 政治적으로 적절한 態度的 性向(attitudinal disposition) 및 行態的 類型(behavior pattern)을 배우는 過程〉이라고 한다.<sup>3)</sup>

2) Gabriel A. Almond, "Introduction: A Functional Approach to Comparative Politics," in Gabriel A. Almond and James S. Coleman(eds). *The Politics of the Developing Area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0), p.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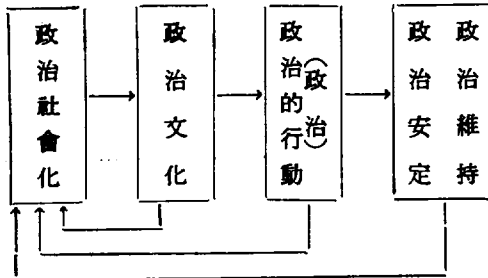
3) Kenneth P. Langton, *Political Socialization*(N. Y: The Free Press, 1959), p. 5.

따라서 David Easton은 〈사람들이 政治定向(political orientation)과 行態類型(behavior Pattern)을 습득하는 발전적 過程〉이라고 규정하고 있다.<sup>4)</sup> 요컨대 政治社會化는, 各 個人이 현존의 政治體系에 의해 채택되고 실행되는 政治的 規範과 態度 및 行態의 類型을 한편으로는 배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르침을 받는 過程이라고 하겠다.

둘째로 政治社會化를 시도하는 주요 目的 즉 政治現狀 또는 政治體制에 미치는 주요 機能은, 일반적으로 Richard E. Pawson과 Kenneth Prewitt는 政治文化를 중심으로 해서 ① 政治文化를 유지하고, ② 政治文化를 變化시키며, ③ 政治文化를 새로 만들어 내는 機能을 한다는 것이고, Ton Devos는 政治社會化의 주요 機能으로 ① 한 국가의 一定한 政治文化를 유지, 발전 또는 형성을 도모하고, ② 그에 따른 一定한 政治生活(political Life)의 持續성과 豫測性을 가능케 하며, ③ 특히 一定한 政治體制의 維持를 위한 機能을 수행한다고 한다. 요컨대 政治社會化의 주요 機能은 먼저 巨視的 水準(macro level)에서 볼 때 ① 政治文化의 維持 및 發展 또는 새로운 政治文化의 操作을 하고, ② 그에 따라 政治體制의 유지 또는 正統性 부여에 기여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微視的 水準(micro level)의 측면에서 보면 ① 各 個人의 一定한 政治的 自身(political self)를 定立케 하고, ② 各 個人의 一定한 政治行態의 維持와 豫測을 가능케 한다고 인정된다.<sup>5)</sup>

政治社會化의 機能을 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表 1〉 政治社會化의 機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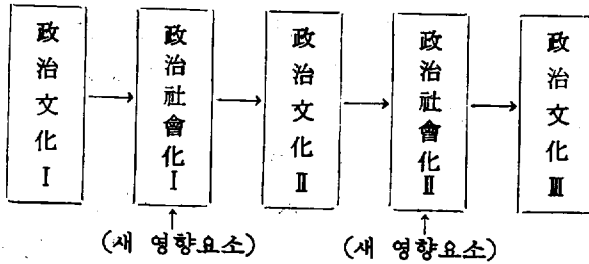


세계 各 個人의 政治社會化가 이루어지는 過程을 Sandra Kenyon Schwarty와 David C. Schwarty는 ① 政治社會化되는 個人의 役割, ② 政治的 態度를 형성하는 方法, 時間, 內容에 대한 動的인 運營過程(operative process), ③ 종래의 家庭, 學校, 同僚集團, 職場, 매스 미디어는 물론이고 政治體制, 各種 社會集團, 심지어 各種 事件, 幼年期 등에 대한 중요성

4) David Easton and J. Dennis, Children in the Political System: Origin of Political Legitimacy(N.Y: McGraw Hill Book Company, 1969), p. 27.

5) 李知勳, “中共青少年的 政治社會化”, 清大春秋, 清州大學學徒護國團, 1978. 23, p.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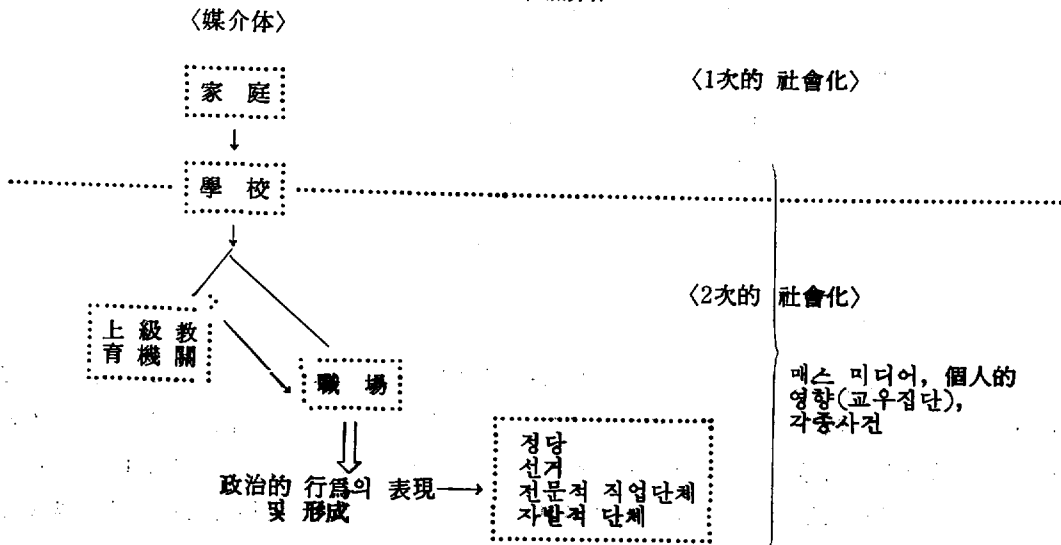
〈表 2〉 政治文化와 政治社會化



을 강조하고 있다. Ton Devos는 보다 綜合的으로 다음과 같이 다섯 過程으로 나누고 또 이를 각각으로 다시 細分하고 있다. 첫째, 個人을 中心으로 한 過程: ① 家庭, ② 同僚, ③ 職場, 둘째, 重要 事件을 통한 過程: ① 個人 또는 集團의 事件, ② 國內 및 國際의 事件, 셋째, 非組織的 集團體(unstructured collectivities)를 통한 過程: ① 暴動(riot), ② 大衆騷擾(mob scene), ③ 自發的 데모(spontaneous demonstration), 넷째, 公式的 政治構造를 통한 過程: ① 政府機關과 그 構成員, ② 教育機關과 그 프로그램, 다섯째, 非公式的 政治構造를 통한 過程: ① 政黨, 壓力團體, ② 매스 미디어등을 제시하고 있다.<sup>6)</sup>

이들 政治社會化 媒介體들을 政治社會化 過程과 관련시켜 하나의 圖表로 나타내 보면 〈表3〉과 같다.

〈表 3〉 政治社會化 過程과 媒介體<sup>7)</sup>



6) David C. Schwarty and Sandra Kenyon Schwarty, (eds.), *New Directions in Political Socialization* (N. Y: Free Press, 1975), p. 39.

7) Robert E. Dowse and John A. Hughes, *Political Sociology*. (London: John Wiley & Sons, 1972), p. 182.

그러면 政治社會化에 대한 一般의인 理論的 現象이 이상과 같다고 하면 北韓은 共產政治體制인 만치 共產國家에 있어서의 政治社會化의 現象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問題가 대두된다. 엄밀히 말해서 각자의 政治社會內에서 이루어지는 政治社會化의 現象, 즉 그 過程的 類型은 자기 그들의 政治社會的 條件에 따라 서로 다를 수 밖에 없으리라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한 政治社會에 있어서도 時代的인 條件에 따라서도 자기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각 國家가 갖는 구체적인 政治社會化의 過程的 類型의 相異性에 대한 엄격한 파악보다는 民主國家에 비해 共產國家가 갖는 일반적인 政治社會化의 過程的 特徵을 규정해 보면서 北韓의 政治社會的 特徵에 입각한 그 나름대로의 政治社會化의 過程을 우선 규정 제시하는 것으로 限定코져 한다.

Joel J. Schwarz는 政治社會化의 內容과 過程에 있어 特徵을 크게 두가지로 나눈다.<sup>8)</sup> 하나의 類型은 政治社會化過程이 대단히 非組織的(unstructured)이고, 非公式的(informal) 즉 自意的 또는 自然發生的이며 政治社會化를 통해 전달되는 政治的 內容도 훨씬 <잠재적(latent)>인 나머지 政治社會化는 無限하고도 雜多한 各種 影響의 產物(the product of a myriad of influences)로 결과되는 것임에 대하여 다른 하나의 類型은 政治社會化過程이 대단히 組織的이고 劃一的이며 中央統制的 즉 國家가 政治社會化의 過程에 철저히 개입하여 政治社會化의 <媒介體(agent)>도 國家가 장악할 뿐 아니라 그 <內容>도 <명시적(manifest)>이어서 政治社會化는 일정하게 定型화된 形態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다. 前者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民主主義政治體制의 政治社會化의 特徵으로 규정하고, 後者の 경우는 보편적으로 共產主義(全體主義) 政治體制에서 실현되는 政治社會化의 類型이라고 한다.

金日成 지배하의 北韓共產體制는 共產國家들 중에서도 극히 1人支配의 閉鎖的인 性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만치 北韓에 있어서의 政治社會化의 類型은 역시 대단히 組織的이고 劃一的인 뿐만 아니라 中央統制的으로 실현되고 있음에 비추어 보건데 지금까지 北韓共產政治體制 나름대로의 一定하게 定型화된 人間을 만들어 내는 데 온갖 努力을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론바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社會主義 憲法」이라는 北韓 憲法 第2條에 보면 “勞動階級이 領導하는 勞農同盟에 기초한 全體人民의 政治思想的 統一과 社會主義的 生産關係와 自立的 民族經濟의 土臺에 의거한다”라는 규정이 있다.<sup>9)</sup> 즉 全體人民의 政治思想的 統一을 國家存立의 必須要件으로 強調하고 있으며 따라서 政治社會化가 國民들의 政治思想的 統一을 위해서 意識的으로 統制되고 있으며 또한 政治的으로 그것은 몹시 重要的 機能으로 公認되고 있음

8) Joel J. Schwarz, "Political Socialization: The Elusive "New Soviet man", Problems of Communism. Sep-Oct, 1973, p. 39.

9) 極東問題研究所編, "北韓政治論", (서울: 1976), p. 584.

알 수 있다. 더군다나北韓에서 政治思想的 統一을 強調한다는 것은 하나의 理念만이 容認되고 있음을 뜻한다. 原則적으로 共產主義 國家에서는 하나의 政治思想 곧 마르크스-레닌主義 이데올로기를 전체 국민이 신봉하여 전지하도록 政策的 原則이 확정되어 있다.

따라서北韓의 政治社會化는 위를 토대로 본다면 각 個人들은 他律적으로北韓政權, 특히 金日成이 바라는 바의 政治定向 및 行態를 배우도록 強要하는 形態로 대단히 下向的이고 一方的이며 被動的인 政治社會化가 支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한 쉽게 단정할 수 있다.

民主主義 政治体制와는 달리 第二次世界大戰 後 소련을 제외한 모든 신생 共產主義 政治体制들이 그들 人民에 대한 政治社會化의 실현에 있어서는 一定한 政治的 社會化의 段階가 구별되어지는 것 같다. 대개의 경우 共產國家의 政治社會化 단계를 時間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① 再政治社會化(political resocialization) 단계와 ② 새로운 共產主義的 人間, 즉 定型화된 人間の 創造로 구별 되어지는 것 같다. 이러한 첫째단계는, 共產主義政權이 수립되기 以前에 一定하게 政治社會化되어 있는 人民들을 새로운 共產主義政治体制에 다시 適應시킴으로서 共產主義体制의 기본 土台를 닦기 위한 初期의 強力한 政治社會化의 性格을 갖는 것이고, 둘째단계의 것은 社會主義下에 있어 새로이 定型화된 人間을 창조함으로서 共產主義体制의 維持 및 發展, 다시 말해서 그 体制의 永續化를 위한 後期の 長期的이며 持續的인 政治社會化로서 특히北韓의 경우 繼續革命的 한 根本形態를 이루는 것이라고도 하겠다.<sup>10)</sup>

그러나 신생 共產國家들에 있어 政治社會化의 節次를 면밀히 볼 때 단지 再政治社會化와 새로이 定型화된 人間の 創造라는 두개 段階만으로 區別하는 것은 어느면에서나 상당한 無理가 있는 것 같다.<sup>11)</sup> 특히 再政治社會化의 단계를 보면 전연 새로운 政治秩序, 즉 共產主義 政治体制에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그 体制에 대한 適應에 앞서서 옛날의 政治社會化 形態로 부터의 탈피 내지는 辨式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初期共產國家에 있어서는 하나의 政治社會化 方法으로 "洗腦"(brain-washing)라는 方法이 흔히 사용되며 또한 그에 대한 강력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다. 論理的으로 볼 때 우선 過去로부터 脫皮 또는 洗腦過程을 거친 후 새 政治秩序에 적응하는 過程이 보통 뒤따른다고 한다면 再政治社會化 過程은 사실상 두가지 別個過程의 융합이라고 인정된다.

Edgar H. Schein은 以上과 같은 事實을 充分히 인정해서 인지 中共에서 美國人 戰爭포로들을 強制說得(coercive persuasion)하는 方法으로 ① 解氷(unfreezing), ② 變化(changing),

10)北韓의 경우는 中共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11)李知燾, 前揭論文, p. 64.

③ 再結氷(refreezing)이라는 三段階의 方法을 사용하였다고 한다.<sup>12)</sup> 이와 같은 3段階의 分類를 전개하는 Schein의 "스킴"(scheme)에 따라 共産國家 특히 北韓의 特徵에 맞추어 政治社會化의 過程의 段階를 규정하여 보면 ① 既存에의 抵抗 또는 脫皮, ② 革命意識의 鼓吹(階級教養) ③ 새로운 共産主義의 人間의 創造(共産主義教養)라는 三段階로 나누어 北韓의 政治社會化 現象을 분석할 수 있지않나 한다.

첫째 既存에의 抵抗 및 脫皮는, 대체적으로 밝혀진 바와 같이 北韓에 있어서 共産政權이 수립되기 以前에 뿌리깊이 存在해온 傳統的 價値觀 또는 소위 封建的이며 資本主義的 殘滓에 대한 抵抗意識의 고취와 그로부터의 벗어남에 초점을 둔 것이고,

둘째 革命意識의 鼓吹에 목적을 둔 階級教養은 勞動者 農民大衆에 대한 資本家 등 餘他階級에 대한 敵愾心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勞動者들을 중심으로 한 強力한 階級意識을 고취하여 過度的 階級革命을 꾀하여 共産主義建設을 시도하는 것이며,

셋째로 새로운 定型化된 人間의 창조(共産主義教養)는 모든 人民 특히 勤勞大衆을 共産主義의 劃一的인 狂信者로 만들어 共産政權의 永久化를 기하려는 側面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끝으로 共産國家의 政治社會化에 있어서 媒介體를 기준으로 한 過程의 類型을 보자. 이미 共産國家의 政治社會化의 過程의 特徵은 대단히 組織的이고 劃一的이며 中央統制的에서 一方的이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共産國家에 있어서는 媒介體의 作用도 組織的이며 劃一的이며 中央統制的 및 一方的이라는 것 역시 재언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北韓에서는 金日成의 이데올로기, 地位, 作用은 거의 絶對的으로서 그것이 거의 全部라는 것도 벌써 밝혀졌다. 그렇다면 政治社會化의 媒介體들도 金日成을 頂點으로 해서 中央統制的이며 劃一 내지 一律的으로 作用하고 있으리라는 것을 또한 쉽게 알 수 있다.

北韓의 경우도 政治社會化에 영향을 주는 媒介體로 여러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北韓의 一般市民에 대한 社會教育的 次元에서 政治社會化만을 전개하고 있는 以上 일반市民의 政治社會化에 대하여 어느 社會에서나 가장 重要한 役割을 한다고 인정되는 매스 미디어, 그 중에서도 新聞媒體에 限定하고자 한다. 이렇다고 다른 媒介體를 전면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共産主義國家에 있어서는 新聞이 黨의 직접 지배하에 있으며 政治道具로 公式化되어 있다. 共産國家에서는 「新聞이란 集團의 宣傳者이며 煽動者일

12) Edgar H. Schein, et al. Coercive Persuasion. (N. Y : W. W. Norton & Company, 1961. ), pp. 19-20.

解氷은 過去로 부터의 탈피, 즉 存續해온 精神的 意識均衡(the existing equilibrium)의 動搖 및 不安이며, 變化는 새로운 意識均衡의 모색 또는 그런 균형에 대한 적응적 시도이고, 再結氷은 새로운 意識均衡에의 固定과 安住를 뜻하는 것이다.

李知熙, 前掲書, p. 65. 再引用.

뿐만 아니라 集團의 組織者로…人民을 教育하고 黨의 理念과 政策을 선전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인 동시에 社會建設에 노동자, 농민들을 참여하게 하는 手段」으로 가장 중요한 「人民의 政治 社會化 媒介體」로 간주되고 있다.<sup>13)</sup>

金日成은 「黨 機關紙」인 로동신문을 가리켜 “우리 黨의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黨의 方針과 政策 그리고 黨員들의 鬭爭任務를 一時的으로 해결하므로써 黨員들을 교양하는 것이며…黨은 每 時期의 政策的 方向을 黨 기관지를 통하여 각급 黨과 黨員들에게 信號한다. 그러므로 黨 기관지는 곧 黨의 指導者와 같다”고 했다.<sup>14)</sup> 따라서 로동신문은 黨 理論紙와 黨員教養紙의 성격을 띤 것으로 뉴스보다는 黨의 政策方向下達을 더 중요한 임무로 하고 있다. 이러한 뜻에서 로동신문은 金日成이 人民大衆에게 認識시키고 싶어하는 狀態의 記述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이 研究는 北韓의 人民大衆에 대한 政治社會化가 北韓의 특유한 政治的 狀況에서 어떠한 機能을 하게 되는가와 그게 「黨 機關紙」에 어떻게 투영됐는가를 證據적으로 검토하려고 하는 것이다.

## ■ 北韓의 政治体系와 政治社會化

### 가. 政治社會化에 대한 認識

北韓政權은 執權 初期부터 政治社會化의 重要性을 항상 강조해 왔다. 金日成은 北韓政權이 強壓과 確信의 混合에 의해 유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政權에 대한 大衆의 確信感을 증가시키도록 강조했었다. 金日成은 “共產主義社會에 移行하는 데 必要한 前提條件, 즉 經濟的 條件(社會의 物質的 富)과 政治的 條件(大衆의 共產主義意識)이라는 스탈린의 命題를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前者를 「物質的·技術的 要塞」로, 後者를 「思想的 要塞」라고 즐겨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共產主義를 建設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두개의 要塞를 占領하여야 합니다. 하나는 物質, 技術的 要塞를 占領하는 것인데…, 共產主義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思想的 要塞를 占領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共產主義思想으로 철저히 改造하지 않고서는 共產主義의 物質的 要塞도 占領할 수 없으며 따라서 共產主義社會를 完全히 建設할 수 없습니다.」<sup>15)</sup>

13) 李相禹, “프라우다紙에 反映된 韓國과 北韓: 1972~1978. 韓國의 安保環境 2집(서울: 考試研究社, 1980), p. 241

14) 李相禹, “로동신문社說에 나타난 北韓政策關心의 變遷: 1967~1973,” 韓國의 安保環境 1집(서울: 審香閣, 1977), pp. 364-365.

15) 金日成, <보건위생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1968. 조선노동당출판사, p. 162.  
梁好民, “3大革命의 源流와 展開,” 北韓學報 1집(서울: 북한연구소, 1977), p. 32에서 재인용.



이 두 「要塞」중 金日成이 絶對的으로 重要視해 온것은 「思想的 要塞」며 따라서 北韓의 勞動黨이 이른바 社會主義建設에서 새로운 양상을 이룩하기 위한 基本的 革命路線이라고 할 「3大革命」, 즉 思想革命·技術革命·文化革命에 있어서 그는 思想革命的 優位를 부단히 강조해 왔다. 스탈린은 적어도 理論上으로 共產社會로 移行하는 條件으로써 經濟的 條件과 政治的 條件을 同位에 놓거나 經濟的 條件을 오히려 優位에 두었지만 金日成은 毛澤東과 마찬가지로 모든 事業에서 政治事業을 앞세우고 근로자들에 대한 共產主義 教養을 強化하여 思想改造, 人間改造을 다그치라고 촉구해 왔던 것이다. 그의 이른바 3大革命중 思想革命과 文化革命은 「思想的 要塞」를 占領하기 위한 革命이라는 것이다. 그는 自己의 觀點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社會主義 社會에는...근로자들 속에 남아있는 낡은 思想을 뿌리뽑고 그들을 다 公산주의사상으로 武裝시키기 위한 思想革命을 重要내용으로 하는 階級鬭爭의 기본형식이 있는 것입니다.

全社會를 革命化하고 勞動階級化하여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思想殘滓를 완전히 뿌리뽑고 그들을 모두 다 노동계급의 혁명사상,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켜 진정한 공산주의자로 만들어야 합니다.」<sup>16)</sup>

金日成에게 있어서 思想革命的 목적은 모든 住民을 勞動階級化하여 共產主義的 人間으로 만드는 것이다. 즉 새로운 社會主義 人間을 만드는 것이 곧 北韓에서의 政治社會化의 目標인 것이다. 특히 人間改造(政治社會化)를 思想改造와 동일시하는 것은 意識(consciousness)에 관한 共產主義者들 특유의 想念에 기초하고 있다.

金日成은 "思想意識은 사람의 價値를 결정하며 사람의 모든 活動을 規制한다"고 믿는다.<sup>17)</sup> 원래 마르크스에 있어서 人間은 사회적 環境에 條件지어지며 새로운 社會는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즉 "人間的 存在를 결정하는 것은 그들의 意識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社會的 存在가 意識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레닌에 이르러 修正되었으니 그에 위하면 새로운 社會는 새로운 人間을 前提로 하며 따라서 그러한 인간은 인위적으로 창조되어야 할 것이다. 레닌은 "物質的 힘은 物質的 힘에 의해서만 건부될 것이다. 그러나 理論도 大衆을 움직이기란 하면 物質的 힘이 되는 것이다."라는 마르크스의 말을 근거로, "觀念은 대衆을 사로잡을 때 힘이 된다"고 말했다.<sup>18)</sup> 여기서 "思想은 行動을 결정한다"는 신념과 따라서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은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의 前提로 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思想改造 즉 政治社會化가 云謂되는 所以가 있다.

16) 「金日成 著作選集」, 4, p. 447.

17) 「幹部學習提綱」, (北韓幹部 및 黨員學習資料), (서울: 北韓研究所, 1977), p. 101.

18) Robert Conquest(ed), The Politics of Ideas in the U. S. S. R. (N. Y: Praeger, 1967), p. 15.

北韓에서 추진되고 있는 思想革命(政治社會化)의 내용은 무엇인가? 北韓의 한 冊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사상교양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로, 근로자들을 수령의 革命思想과 그 구현인 당의 路線과 정책으로 사상무장시키는 당 정책교양을 강화하며, 둘째로 근로자들을 수령의 혁명역사와 그리고 수령에 대한 革命先烈들의 忠實性을 본받게 하는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며, 셋째로 근로자들을 노동계급의 계급의식, 階級的 怨讐에 대한 증오와 비타협적인 투쟁정신, 集團主義·精神 노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 社會主義的 愛國主義 思想등으로 精神武裝시키는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는 것이다.」<sup>19)</sup>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黨員들과 勤勞者들을 우리 黨의 革命思想, 主体思想으로 튼튼히 武裝시키는 것”이다.<sup>20)</sup> 즉 思想革命이 목적하는 것은 첫째 共產主義의 諸價値와 規範—예를 들어 노동과 集團에 대한 사랑—을 주입시키며 黨과 國家, 그리고 首領(金日成)에 대한 忠誠을 고취하는 것이다. 이로서 革命이 長期化되는데에 따른 권태와 무관심등에 맞대어 革命的 熱情과 革命的 生活態度를 견지할 것, 다시 말해서 勤員에 상응하는 정신상태를 갖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金日成은 이로서 現體制에 대해 高揚된 正統性을 기초로 政治的 統合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金日成은 “人間의 性格과 行動은 社會와 國家가 그 인간에게 부여한 要求에 의해 형성된다.”는 共產主義 教育理論에 입각하고 있고, 北韓의 政治社會化의 目標은 北韓政權에 필요한 行動과 性格 및 人格의 特性을 형성함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 나. 體制正當性과 政治社會化

政治的 正當性(political legitimacy)은 무엇인가? 政治的 正當性의 效用은 무엇인가? 어떤 種類, 어떤 性格의 政治體系도 權力行使의 根據로서, 또는 權力行使에 必要한 正當性을 부여하기 위해서 政治體系를 正當化하려고 한다.

君主制는 寡頭制는, 共產體制는 民主體制는, 또는 治者와 被治者의 合意에 의했건, 僞裝된 政治的 심볼(symbol)에 의한 操作에 의했건, 強制(coercion)에 의했건 간에 모든 政治體制는 그 權力行使에 있어서 正當性의 根據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意義에서 政治的 正當性은 政治體系의 確立·維持·強化에 있어서 必須條件이 되고 있다.

一部 社會學者들 특히 組織理論家인 아미타이 에치오니(Amitai Etzioni)와 같은 學者는 權力

19) 「金日成主義 原理」중보판(統一革命黨 中央委員會 宣傳部, 1974), p. 136.

20) 「幹部學習提講」, p. 104.

行使의 根據가 될 수 있는 힘(power)을 「當爲의인 힘(normative power)」, 「物質的인 힘(material power)」, 「強制的인 힘(coercive power)」의 세가지로 分類하고, 이 세가지의 政治的인 힘이 모든 權力構造에는 共存하고 있으며 交互的으로 使用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sup>21)</sup>

正當性이 共產主義 國家에서 어떤 過程을 거쳐 確立되느냐 하는 문제는 당연히 民主主義 國家와는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前述한 바 있는 正當性의 根據가 되는 세가지 힘 中에서 「強制的인 힘」의 使用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조위트(Kenneth Jowitt)의 지적과 같이 說得에 의한 操作形態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sup>22)</sup>

그리고 共產主義 体制의 경우, 共產圈內의 各体制마다 相異하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政權장악이 成就된 以後에는 合法的 權威의 助長은 카리스마의 權威(엄격히 말하면 「似而非카리스마」(pseudo-charismatic authority)의 權威)에 依存하는 正當化 過程(legitimation process)을 밟아 왔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유럽의 先進共產主義 体制은 1956年 以後 非스탈린化運動(de-Stalinization)으로 말미암아 카리스마적 權威는 急速히 崩壞되고 合理的 支配型으로 變貌되는 傾向을 보였지만 後進 아시아地域 共產体制들은 아직도 個人的 歷史的·政治的 役割을 과장하고 超人間性을 부여하는 「操作的 個人偶像化」에 依存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특히 北韓의 金日成의 카리스마의 權威는 북한 体制의 正當性의 根源으로 操作되고 있으며 따라서 体制 維持·強化의 重要한 源泉이 되고 있다.

이와같이 個人偶像의 權威가 正當性의 基盤으로서 構造化될 수 있었던 理由는 첫째, 이 地域은 外國의 植民地·半植民地의 條件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抵抗民族主義의 性格을 띤 現狀打破(解放)過程에서 個人的 役割이 쉽게 過大評價될 수 있는 基盤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 둘째, 傳統的으로 中國文化圈內에 들어 있었던 관계로 家父長制의 統治方式에 대한 民衆의 反應은 어느 정도 肯定的 態度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個人偶像의 權威形成過程에는 이러한 基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說得커뮤니케이션 즉 政治社會化에 의한 大衆操作的 힘은 過小評價될 수 없다. 특히 힘에 의한 強制, 暴力에 의한 統制가 強力하게 作用했으며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象徵操作을 통한 大衆說得도 猛烈히 추진되었다. 따라서 個人崇拜은 이런 점에서 오히려 操作的 性格이 強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北韓體系는 이러한 性格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體系이다. 北韓의 경우 住民의 再社會化(resocialization) 내지 思想教養을 통해 黨과 國家 그리고 首領에 대한 個人崇拜을 正統的인 것으로 高揚시키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黨의 唯一體系를 確立하는 것이었던 것이다.

21) Amitai Etz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Complex Organization*(N.Y: Free Press, 1961), pp. 71-88.

22) Kenneth Jowitt, "Inclusion and mobilization in European Leninist Regimes," *World Politics*, Vol XXVIII, No. 1. (October, 1975), pp. 69-96.

黨의 唯一體系를 세운다는 것은 자기 수령의 혁명사상, 자기 당 정책으로 전당을 무장시키고 모든 당원들을 수령과 당 중앙의 주위에 굳게 묶어서 혁명사업을 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sup>23)</sup>

요컨대 「唯一思想」體系란 北韓 住民들을 其實 金日成의 革命思想으로 武裝하고 金日成에 따라 생각하고 움직이게 하는 政治社會化의 原則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 金日成을 絕對者로 神格化하고 그의 「敎示」에 따라 살고 죽을 수 있는 人間을 造型하려는 그들의 의도는 다음 글에서 歷歷히 나타나 있다.

「우리는 후대들을 (그들)높이 우러러 모시고 (그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그의)사상과 교시를 신념으로, 신조로 삼을 뿐 아니라 (그의)교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사소한 이유와 구실도 없이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것을 최상의 명예로,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키워 내어야 한다<sup>24)</sup>

北韓과 같이 權威主義的이고 傳統의 文化를 가진 곳에서 非人間的인 制度나 過程에 충성심을 갖도록 하기는 어려운 일이며 따라서 首領 個人에 대한 忠誠을 통해 北韓政權에 대한 正當化를 도모하려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었다.<sup>25)</sup>

결론적으로 體制正當性은 일반적으로 既存 政治體制가 그 사회를 위해 가장 適切하다는 信念을 誘導하고 維持할 수 있는 能力으로 정의된다. 어떠한 體制이건 간에 體制의 權威當局者들은 어떠한 決定을 내리고 執行하든 그것이 暴力과 制裁 또는 強制的 공포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道德的으로 옳고 또한 適切하다는 信念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政治的 正當性은 우선 權威와 그 담당자로서의 權威當局者들을 成員들이 受諾할 수 있을 때 존재한다. 成員들은 權威當局者들이 容認된 規範과 價値등에 一致하여 행동하는 가에 관심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共產政治體制에서 政治的으로 意識的인 同意가 차지하는 비중은 西歐 民主主義 國家의 경우와 비교가 되지 않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政治體制에 있어서나 體制에 대한 成員들의 忠誠과 支持는 體制의 安定과 存立을 위해 절대적인 것이다. 北韓에서 唯一의인 黨과 唯一思想 및 “위대한 수령”에 대한 충성을 하도록 하는 北韓式 「共產主義人間型」을 鑄造하기 위한 政治社會化 過程에 力點을 두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體制正當性의 확립과 制度化를 위한 노력의 一環인 것이다.

23) “金日成의 敎示” 「철학사전」, (평양 :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1970), p. 152에서 인용.

24) 「社會主義教育理論 :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1975, pp. 115-121.

25) Robert A. Scalapino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Part II. (Berkeley : Univ of California Press, 1972), pp. 862-863.

## 다. 社會動員과 政治社會化

一般的으로 共產主義 政權은 体制構築과 維持에 必要한 資源을 動員함에 있어 人爲的이고 計劃的이며 強制的인 側面이 強하게 나타나고 있다. 共產主義 体制은 舊体制의 남은 價値·信念·態度를 급격한 革命의 手段을 통해 조속히 社會主義的으로 改造시키는 데 政權課題가 놓여 있으므로 社會動員의 性格이 強하게 부각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우기 後進共產主義体制은 近代化發展問題를 안고 있기 때문에 全体主義的 動員政權의 性向은 더욱 짙게 나타날 수 있다.

엠펙터(David Apter)는 全体主義 國家의 動員体制의 性格을 다음과 같이 一般化하고 있다.

「行動의 緊迫性을 강조하면서 未來의 이데올로기를 가진 動員体制은 社會의 直接的인 企劃과 철저한 再編成을 向해 轉換된다. 動員의 분위기는 危機에 가득차 있으며 攻擊的이다. …… 個人的 私的인 活動은 正常化되지 않으며 프라이버시(privacy)는 價値로 認定되지 않는다. 모든 社會生活은 오로지 政治化된다. 國家는 모든 것에 優先하여 그의 權力을 行使하는 것이다.」<sup>26)</sup>

이와같은 共產主義体系의 全体主義的 動員方式은 共產主義 特有的 政治文化的 屬性에서 연유한다. 卽 革命엘리트로 構成된 黨이 社會 全体를 이데올로기의 目標을 向해 움직이도록 操作하고 있다는 면에서 그러하다. 특히 소련의 初期 共產化過程에서 볼 수 있듯이 러시아 볼셰비키政權은 移轉文化(transfer culture) 目標을 共產黨과 그 指導者들의 權力獨占·保持, 國防을 위한 重工業建設, 生産手段의 國有化, 主婦의 剝奪 및 市場절제, 有能한 技術人力 確保 및 訓練에 두고 이 目標을 向해 全体 社會가 움직이도록 조종했다.

이러한 소련의 經驗은, 소비에트모델에 의해 後에 세워진 거의 모든 共產主義政權들에 의해 그대로 援用되었다.

共產主義의 移轉文化目標은 이와같이 人民의 犧牲을 要求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없으며, 支持를 받지 못하는 것이 常例이다. 따라서 移轉文化目標에 接近키 위한 動員은 우선 「社會 構成員들로 하여금 그 体制야말로 國民들을 支配할 權威와 能力을 갖고 있다고 믿게 하도록」<sup>27)</sup> 政治化시키는 것으로 부터 시작되며 社會構成員을 새 体制에 적응시키고 동시에 社會動員을 위한 「強制」와 「說得에 의한 政治社會化」를 대대적으로 展開한다.

北韓体制가 指向하는 目標은 餘他 共產主義 諸 体系와 마찬가지로 共產主義 革命과 建設에

26) David E. Apter, *The Politics of Modernization*,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65)p. 360.

27) Richard M. Merelman, "Learning and Legitimac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XIX, No. 3. (September, 1966), p. 548.

있으며 이를 實現키 위한 政策的 指標로서 提示되고 있는 것이 組織·動員의 問題이다.

「共和國 北半部에서의 社會主義 經濟建設은 우리 革命基地의 物質的 力量을 強化하는 기본 담보로 됩니다. 그것은 北半部 人民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南朝鮮 人民들에게 社會主義 制度의 優越性을 뚜렷이 보여줄 수 있으며 그들의 革命鬭爭을 더욱 힘있게 支援할 수 있습니다. ……革命과 建設은 大衆自身の 事業이며 그것은 마르크스·레닌主義 黨의 領導 밑에 광범한 大衆이 組織·動員되어야만 成果的으로 遂行될 수 있습니다.」<sup>28)</sup>

위의 金日成의 演說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北韓의 政權課題인 「革命과 建設」을 達成하기 위한 重要的 政治的 指標는 역시 大衆을 여하히 效率的으로 組織·動員하는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組織·動員의 效率性은 곧 北韓體制 維持 및 強化의 關鍵이었다. 北韓體制는 이러한 組織·動員의 效率性을 높이기 위하여 테러와 같은 強制的인 힘, 政治社會化(政治思想敎養)를 통한 精神의 刺戟方式, 그리고 生活水準의 提高와 같은 物質的 刺戟方式을 時期에 따라 適切히 強度를 달리하면서 配合시키었다.

그럼에도 北韓體制의 組織·動員패턴은 주로 黨 理念의 確立을 위한 政治的宣傳·煽動에 注力하는 즉 物質的 補償보다는 意識構造改革 爲主의 共產主義 革命 鼓吹에 力點을 두는 精神的 補償(政治社會化)에 優先 順位가 주어진다. 따라서 住民에 대한 政治社會化가 모든 政策에 우선 하였다.

北韓의 社會主義建設을 최대한의 速度로 다그치고 生産을 비약시키기 위한 戰鬪的 動員體制로서의 千里馬運動을 보면 근로자들에게 革命的 감격을 불러일으키고 熱狂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不平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階級鬭爭」을 단행하고, 고도의 心理的 긴장을 통해 大衆의 勞動力을 끌어내는 方式으로 強化되어 있다.<sup>29)</sup> 여기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이들에 대한 이데올로기의 強化이다. 先進的 技術과 資本이 결여되어 있고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보수를 줄 수 없는 條件下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리하여 이들을 共產主義의 政治이데올로기를 武裝시키는 運動 즉 政治社會化는 社會主義建設에서 先次的인 課業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金日成은 解放以後 부터 오늘까지 「黨思想事業」, 「思想敎養事業」, 「思想改造運動」, 「黨內階級敎養事業」 등 다양한 이름으로 黨이데올로기 敎化運動을 벌여왔던 것이다. 그러나 1958年 9월경 부터는 「思想革命」이라는 用語를 만들어 그것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 同年 9月 7日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28) 「김일성 저작선집」, 4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8), p. 202.

29) 梁好民, 前揭論文, p. 12.

「社會主義工業化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두 가지 중요한 任務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 하나는 思想革命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社會制度는 改造되었으나 아직까지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資本主義思想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이 낡은 思想 잔재를 뽑아 버리고 근로자들을 共產主義思想으로 무장시켜야 합니다. 근로자들의 思想意識을 개조하는 동시에 그들의 文化技術도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社會의 生産力도 높이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sup>30)</sup>

金日成이 千里馬運動이 出現하고 있던 시기에 한 이와같은 말은 이른바 社會主義建設의 大高潮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勤勞者들에게 革命的 熱意와 階級意識을 고취함으로써 이들을 共產主義的 人間으로 改造하는 政治社會化가 절대시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요컨대 金日成은 北韓의 社會主義建設을 위한 組織·動員은 客觀的인 經濟法則보다는 革命的 思想, 革命的 情熱을 우선시키는 主意主義的 方法에 의존했다. 이런 狀況에서는 大衆에 대한 黨의 統制는 더욱 強化될 수 밖에 없다. 黨의 統制에서 중요한 수단은 政治社會化를 통한 政治的 ایده올로기의 強化이다. 그리하여 中國大陸에서처럼 北韓에서도 모든 事業 가운데서 「政治事業을 앞세운다」는 말이 빈번하게 強調되어 왔다.

## Ⅳ 「黨 機關紙」와 政治社會化

### 가. 北韓의 新聞政策

北韓의 新聞政策은 전혀 새롭거나, 獨創的인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소련의 마르크스-레닌의 新聞理論에 입각하고 있다. 레닌은 今世紀初에 이미 新聞의 偉력에 대한 인식을 하고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이론적으로 밝힌 바가 있다. 1901년에서 1902년 사이에 레닌이 해외 망명 중에 집필한 글 「무엇을 할 것인가」(what is to be done)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新聞이론의 核心을 이루는 기본문헌이 되고 있다. 레닌에 의하면 근로자 계급의 革命 意識은 그들 자신의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自然性에 의해서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인테리 前衛部隊의 意識적·이론적인 지도에 의해서 「외부로 부터」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意識적인 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노동자 계급과 근로 인민의 조직화된 前衛部隊인 「새로운 羣의 政黨」 곧 불세비키 政黨이며, 그의 끊임없는 대중교육과 대중선동, 선전과 선동을 위한 효율적인 도구가 「새로운 羣의 新聞」 곧 黨의 기관지라는 것이다.<sup>31)</sup>

따라서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新聞이론에 따르면 인민대중을 끊임없이 教化하고 說得하고,

30) 「김일성 저작선집」, 2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8), p. 243.

31) 崔麟鎮, 「北韓의 言論政策」, 北韓의 新聞·放送, 國土統一院, 79-12-1562, pp. 11-12.

活力化하고, 지도하고, 統御하는 수단인 신문은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는 다른 생산수단과 마찬가지로 결코 개인 소유의 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신문을 포함한 모든 매스 미디어는 黨과 大衆組織, 國家的, 社會的 諸 機構의 집단적인 기관지(organ)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공산주의 신문의 綱領처럼 자주 인용되는 레닌의 말과 같이 「集團의 宣傳者(collective propagandist)이며 集團의 煽動者(collective agitator)일 뿐만 아니라 集團의 組織者」(collective organizer)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산주의 신문들의 특성들은 첫째로 이데올로기의 성격이며, 둘째로 黨의 性格 곧 黨性이며, 셋째 대중적 성격을 갖게 마련이다.

金日成은 政權掌握 初期부터 新聞에 대해서는 레닌의 新聞理論을 그대로 模倣하고 있다는 것을 發見할 수 있다. 金日成은 1945년 12월 17일 조선노동당 북조선조직위원회 제3차 擴大執行委員會에서 行한 報告 “북조선공산당 각급 당단체들의 사업에 대하여”라는 題目 下에서

「〈정로〉신문사의 기구를 확장하며 거기에 유능한 일꾼들을 파견하여 신문의 질을 높이며 그 부수를 5만부에까지 달하게 하는 동시에 일간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신문이 집단적 선전자·조직자로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까.」<sup>32)</sup>

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金日成의 新聞에 관한 最初의 公式的 發言으로서 레닌의 新聞理論을 그대로 모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후 〈정로〉는 〈로동신문〉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黨 機關紙로 모든 것을 主導해 나가고있다. 金日成은 1959년 2월 26日 黨 委員長들의 講習所에서 行한 演說에서

「정치이론 서적을 학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보를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동무들이 당보를 보지 않고서는 당의 정책과 당 중앙의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당은 당보를 통하여 전체 당원들에게 자기의 정책을 알려주며 행동방향을 지시하며 신호를 줍니다. 특히 당보의 사실은 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의 결정과 의도를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기사입니다. 거기에서 당원들은 일상적인 투쟁의 방향과 지시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sup>33)</sup>

라고 黨 機關紙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金日成이 이처럼 黨報에 대하여 強調하고 또 新聞을 活用한 것은 공산주의가 원래 黨을 中心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은 黨報가 그의 權力장악을 永久化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大衆을 統治하는 데 가장 便利한 道具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北韓의 新聞政策은 黨 機關紙를 비롯한 각종 신문들을 黨이 직접 統制하는 것 이외에 「勞動

32) 「김일성 저작선집」, 1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p. 21.

33) 前揭書, p. 239.



通信員)制度和「讀報會」制度를 들 수 있다. 「勞動通信員」制度는 소련 및 東유럽 諸國에서 신문과 대중과의 협력을 위해서 보편화되고 있는 「人民通信員」(volkskorrespondent)운동과 유사한데, 비 전문적인 노동자, 농민, 군인 등에서 선발되어 훈련받은 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黨과 신문이 대중을 체크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면 틀리지 않는다.<sup>34)</sup> 이들은 그들의 직장이나 활동분야에서 「비판과 자기비판」을 수행하는 기능도 하며, 黨의 통제하에 있는 신문사 편집국에서 人選되고 訓練받으며 이들이 편집국으로 보내는 通信內容은 반드시 모두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黨과 政府를 위한 深層의인 情報網 組織이라 해서 크게 빛나가지 않을 것이다.

북한에서는 신문·방송을 혼자서 읽고 듣게 하지 않고 공장이나 논두렁과 같은 일자리에서 선동원을 중심으로 集團의으로 읽고 그 내용을 討論하는 「讀報會」가 조직이 되고 방송 프로그램 또한 집단 청취, 집단 시청이 일반화되고 있다.<sup>35)</sup> 北韓에 있어서 對面 채널을 통해서 선전·선동업무를 담당하는 하부조직으로서는 각 직장단위 및 각 農村의 作業班單位에 配置된 「일선선동원」, 「노동통신원」, 「청년 기동 선전대」, 「5호담당 선전원」 등이 곧 대중매체와 북한 주민을 연결하는 요원들이다. 이들은 政治學習 時間에 정기적으로 소집단으로 모인 대중들에게 「黨 機關紙」를 비롯한 신문의 내용에 대한 해석을 가하고 集團討論을 指導함으로써 大衆을 煽動할 수 있다. 그리고 대중은 이 「小組」단위의 集團規範이 자신을 속박하고 있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이 規範에 바탕을 두고 있는 신문의 內容을 거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오히려 자신을 「讀報會」모임에 귀속시켜 報償을 받으려는 心理的 動機가 作用하여 신문의 內容의 內面化는 물론이고 黨이 의도하는 行動의 變容을 적극적으로 보일 것이다. 이와같은 「미디어 채널」과 「퍼스널 채널」의 결합은 메시지 전달의 효과를 높여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북한에서는 「黨 機關紙」를 비롯한 각종 신문이 黨의 統制하에 발간되어 대중에게 〈새로운 공산주의 인간형〉을 제시하고, 대중으로 하여금 의식과 행동을 그 모델에 따라가도록 하는 政治社會化의 媒介체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로동신문」分析

〈로동신문〉은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의 機關紙로서 北韓에서는 가장 權威있고 發行部數가 많은 新聞이다. 〈로동신문〉의 本身은 1945년 11월 1일 當時 〈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의 기관지로 發刊된 〈正路〉였는데, 1946년 8월 29일 北朝鮮共產黨, 朝鮮新民黨과 더불어 北朝鮮勞動黨의 黨報로서 〈로동신문〉으로 명칭을 바꾼 것이다.<sup>36)</sup> 北韓政權은 〈로동신문〉의 파업에 대해 同紙

34) 崔順鎭, 前揭論文.

35) 前揭書, pp. 34-35.

36) 北韓概要, 前揭書, p. 191.

創刊 25周年 축하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sup>37)</sup>

첫째, 全人民을 黨의 유일사상으로 무장

둘째, 社會의 革命化, 勞動階級化

셋째, 文化革命의 추진

네째, 國防力 強化 및 南朝鮮革命과 祖國統一에 대한 5大 方針 貫徹

다섯째, 金日成의 世界革命戰略으로 武裝

〈로동신문〉 1판호 發刊紀念社說에서 신문의 성격과 역할을 강조한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 〈로동신문〉의 특성을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sup>38)</sup>

「...〈로동신문은 김일성동지의 革命思想과 敎示를 끊임없이 大衆에게 解說·宣傳해 주며 끝까지 關切·침투시키는 것이 임무이며 榮譽로운 과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같은 〈로동신문〉은 北韓에서 발행되는 모든 新聞들의 指導者的 立場에 있음은 물론이고, 귀감이 되고 있음은 놀라운 일이 못된다. 따라서 모든 신문들은 이 〈로동신문〉의 複寫版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로동신문〉에 게재된 記事內容의 80%이상을 그대로 轉載하고 있다.

### (1) 編輯制體의 特性<sup>39)</sup>

- ㉑ 적은 新聞面數(6面)
- ㉒ 각 面의 구별과 特徵이 없는 編輯
- ㉓ 社會面 記事가 없다.
- ㉔ 娛樂面의 記事가 없다.
- ㉕ 廣告가 없다.
- ㉖ 速報性을 度外視하는 編輯態度
- ㉗ 題號 양 옆에 標語가 게재됨
- ㉘ 記事件數가 적고 長文이다.

### (2) 〈로동신문〉記事主體別 分析

1970년부터 1978년에 이르는 9년간의 기간동안에 발행된 〈로동신문〉에 대한 內容分析을 통해 “北韓新聞의 報導性向”에 관한 研究를 한 韓炳九 教授에 의하면 그 結果는 다음과 같다.<sup>40)</sup>

37) 前掲書, p. 190.

38) 「로동신문」, 1970. 12. 21.

39) 李相斗, “北韓新聞의 編輯體制”, 北韓의 新聞·放送, 前掲書, pp. 64-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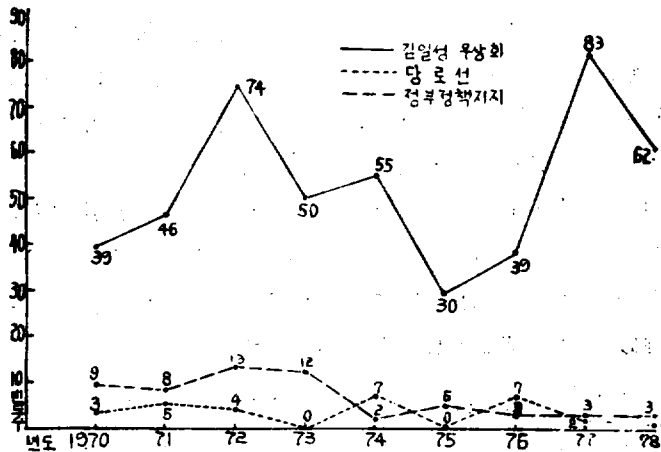
40) 〈로동신문〉記事主體別分析은 전체적으로 韓炳九교수의 研究論文에 의존하였음.

〈表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로동신문〉은 韓國 및 西方世界, UN에 대한 非難 또는 北韓의 同盟國관계 記事등 對外關係記事에 가장 큰 力點을 두며(총 기사건수 4,072件 중 62.9%), 다음이 革命生活이라든지 물자절약, 증산강요 등의 經濟關係(動員)記事(15.8%), 北韓內외의 金日成 찬양등의 金日成 偶像化기사(11.7%), 그리고 각종 행사라든지 출판에 關한 社會·文化관계記事(6.2%)의 順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사실은 지난 9년간에 걸쳐 비록 金日成 偶像化 記事가 건수면에서는 다른 주제에 다소 뒤떨어지고는 있으나 實際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종류의 기사보다 훨씬 많은 紙面을 金日成 偶像化 記事가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로동신문〉의 경우 6面중 간지 두 面에는 거의가 金日成의 成長과정이나 抗日투쟁, 혁명활동 등에 關한 長文의 論文이나 金日成을 찬양하는 文藝창작물로 充당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立證해 주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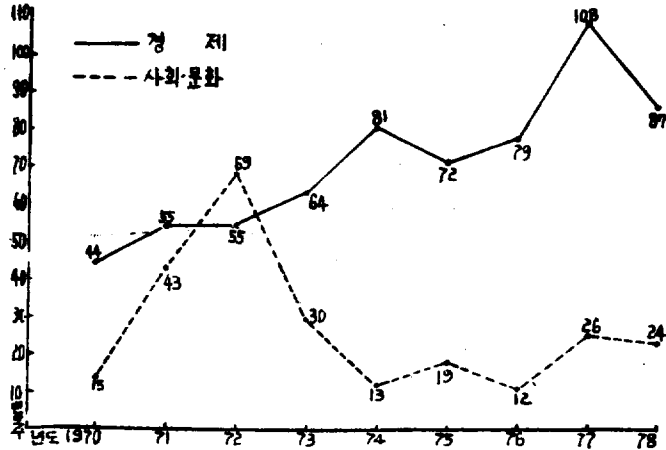
記事의 主題別로 게재빈도의 變化추이를 살펴 보면 〈表4〉에서 보듯이 體制正當性을 提高하는 記事(金日成 偶像化, 黨 路線, 政府政策 支持)중 金日成의 偶像化 關係記事가 그 頻度數에서 높은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

〈表 4〉 金日成 偶像化, 黨 路線, 政府政策에 關한 題目內容의 變化경향



그리고 分析結果 頻度數에서는 海外關係記事件數보다 뒤지지만 社會·文化관계기사와 비교하여보면 〈表5〉에서 보듯이 經濟關係기사에도 많은 比重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제건설을 위한 經濟動員의 重要性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된다.

〈表 5〉 經濟·社會·文化에 관한 題目內容의 變化경향



(3) 〈로동신문〉標語分析<sup>41)</sup>

北韓新聞에는 여러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新聞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현상은 題號 양옆에 게재되는 標語들이다. 標語의 重要性에 대해 金日成은 1946년 8월 29일 행한 演說에서 "우리는 우리 당의 구호가 인민대중 자신의 구호로 되게 하도록, 인민들 자신이 그 실천을 위하여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여 黨의 口號가 大衆動員에 얼마나 主要한 것인가를 強調한 바 있으며, 따라서 黨의 口號가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생각되는 新聞標語는 그 形式뿐만 아니라 그 內容이 대단히 煽動的이고 衝動的이고, 讀者를 組織, 動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役割을 한다고 보아진다.

1968년부터 1977년까지 10년간의 〈로동신문〉의 標語를 內容分析한 李光宰 教授의 論文에 따르면 〈로동신문〉은 1968년부터 1977년까지 10년간 총 106개의 표어를 사용했는데 主題別로 나누었을 때 전체 標語의 60.3%를 勞力動員(經濟動員)에 치중하고 政治動員은 39.7%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分野와 主題別로 細分化하면 〈表6〉과 같다.

〈表 6〉 10년간 (1968~1977) 사용한 〈로동신문〉標語의 主題別 百分率

分 野	政 治 動 員			經 濟 動 員	計
	全 局 百 分 比	黨 路 線 策 劃	政 府 政 策 策 劃	勞 力 動 員	
백 분 율	17.9	12.3	9.5	60.3	100.0 %

41) 이 부문에 李光宰教授의 博士學位 論文인 "北韓新聞의 大衆動員性에 關한 研究"(경희대학교 대학원, 1979), pp. 135-178에 의존하였음.

(4) <로동신문>社說 主題別 分析

본 研究者는 1980년 1월 1일부터 1980년 12월 31일 사이의 <로동신문>社說을 分析했다. <로동신문>은 이미 밝혔듯이 黨 理論紙와 黨員 教養紙의 性格을 면 것으로 뉴우스보다는 黨의 政策方向 下達을 더 중요한 임무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신문기사 내용도 뉴우스보다는 論說이 훨씬 많고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政策方針은 가장 중요한 論說인 社說로 많이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뜻에서 <로동신문>社說은 北韓의 政策方向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資料 中の 하나다.<sup>42)</sup>

<로동신문>은 80년 1년 동안에 154개의 社說을 싣고 있다. 그 社說들을 전부 各 主題別構成比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表 7> 1980년 <로동신문>社說 主題別 構成比

主 題 區 分	社 說 數	%	
北韓 國內 問題 135件 (87.7%)	金日成 偶像化	18	12
	黨의 唯一思想體系 強調	27	17.5
	經濟建設 促進	82	53.2
	經濟的 革命生活 強調	5	3.2
	教育事業 強調	2	1.3
	기타 (育兒事業)	1	0.6
統 一 問 題 6件(3.9%)	北傀 統一方案 支持	6	3.9
對 南 關 係 3件(1.9%)	對 南 非 難	3	1.9
國 際 關 係 10件(6.5%)	對同盟國  찬양	7	4.5
	對美 非 難	3	1.9
總 計	154	100	

이 表에서 보면 全体社說 154件 중에서 약 10분의 9(87.7%)인 135件이 北韓 國內問題이고 이 중에서 87件(56.4%)이 經濟動員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北韓政權이 느끼고 있는 經濟建設의 時急성을 잘 반영하여 주고 있다.

北韓 人民들에 대하여 金日成에 충성하여 政治的 團結을 이룩하자는 내용을 主題로 하는 社說은 全社說의 27.5%인 45件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써 <로동신문>은 北韓政權의 政策課題에 대한 宣傳道具로, 政策目標 達成을 위해 人民을 動員시키는 手段으로, 人民으로 하여금 體制에 대한 正當性을 가지게끔 하는 政治社會化的 強力한 媒介체로 活用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42) 李相禹, 前揭論文, p. 365.

## V 結 言

解放이후 30余年間の 北韓政治史는 結果論的으로 보면 体制의 正當性과 革命과 建設에 따른 動員化를 위한 金日成의 個人的 權威構築過程이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원래 共產主義 政治体系는 本質的으로 엘리트 政治文化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北韓政治体系의 政治文化的 特性은 金日成 一人에게 모든 權力이 集中되고 있으며 모든 政治過程이 金日成의 個人的 權威에 從屬하는 一元的 体系라는 점에 있다.

北韓政權은 解放이후 自己体制의 優越性과 敵에 대한 確實한 勝利를 住民들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人民大衆으로 하여금 共產主義이데올로기를 信念化하고 黨과 國家 그리고 首領에 대한 忠誠心을 提高하기 위한 住民의 再社會化(resocialization) 내지 思想教養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即 계속해서 共產主義思想과 黨의 革命傳統으로 人民을 武裝시키고 解弛와 倦怠를 배격하고 革命的으로 살고 勤勞하며, 金日成에 대한 忠誠을 고취하는 北韓式 「社會主義的 人間型」을 鑄造하기 위한 政治社會化(political socialization) 過程에 力點을 두었다. 이는 体制構築과 維持에 필요한 正當性과 合法性을 確保함과 동시에 政治的 리더십에 대한 無限한 忠誠心을 引出하려는 目的을 두고 있으며 國民的 統合(national integration)을 이룩함과 동시에 鬭爭의 當爲性을 높이는 데 그 目的이 있다.

그리하여 金日成의 個人的 權威는 政治社會化過程을 통하여 하나의 象徴的인 힘으로 北韓 人民大衆의 行動패턴을 規定하는 重要한 指標가 되고 있으며 價值, 信念의 指針이 되므로써 北韓 政治体系의 政治文化的 特性이 되고 있다.

또한 北韓政權은 社會主義 經濟建設이라는 課題에 直面하여서도 大衆動員을 위하여 政治社會化에 依存했다. 人的·物的 資源不足과 先進的 技術과 資本이 缺如되어 있는 北韓의 狀況에서 「野心에 찬」 經濟計劃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大衆들의 「知慧」 「革命的 熱意」 「무궁무진한 創意力」을 예찬하면서, 그들의 勞力을 최대한으로 動員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大衆의 參與意欲과 積極性을 發揚시켜오는 過程에서 北韓이 當面한 重要문제는 역시 意圖된 人間型的 創出이었다. 따라서 政治的 象徴에 의한 精神的 刺戟만으로 反應할 수 있는 定型화된 「操作的 人間型」을 形成하는데 注力해왔다.

大衆들로 하여금 黨(=金日成)이 意圖하는 特定한 行動을 自發的으로 實現케 함과 동시에 個人的 思考方式 차이를 劃一的으로 變革시키는 方向에서 政治社會化를 推進시켜 왔으며 이는 어느 정도 效果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北韓에서의 政治社會化의 機構(媒介體)는 多樣하나, 住民에 대한 政治社會化의 媒介

體는 新聞을 비롯한 大衆媒体(mass media)라고 볼 수 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共產主義體制의 경우 新聞·라디오·텔레비전·映畫·通信·出版·劇場·演劇 및 書籍輸入 등은 國家가 獨點하여 그 內容을 統制하고 있다. 周知되듯이 북한에 있어 大衆媒体에 대한 國家統制는 完全無缺하며 文藝政策 또한 「黨과 大衆을 연결하는 주요한 手段이며, 黨이 提示한 政治·經濟·文化·建設의 功業실천에도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는 강력한 武器」라는 觀念으로 一貫된다. 이는 劃一的 內容의 政治的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鑄型的 政治社會化를 劃策하는 것으로 新聞·放送의 內容分析이 그 實相을 전해 준다.

本 研究에서는 北韓의 勞動黨 機關紙인 <로동신문>에 대한 分析을 시도했는데 記事 및 社說에 대한 主題分析結果 金日成 偶像化를 강조하는 內容과 經濟建設을 강조하는 內容이 主를 이루고 있다. 共產主義 國家의 新聞에서만 볼 수 있는 標語를 보아도 政治動員(金日成 偶像化, 黨路線관철, 政府政策지지)과 經濟動員(勞力動員)을 위한 內容이 전부였다. 그리고 <로동신문>은 讀報會를 통해 大衆에게 注入시키고 있으며 <勞動通信員> 制度를 통해 大衆에 침투되고 있다.

여기서 政治社會化의 媒介체로서의 北韓新聞은, 共產主義社會 建設을 위해서 大衆을 共產主義的 人間으로 改造시키는 동시에 政治的 내지는 經濟的 目的을 위해 大衆을 動員시키는 하나의 手段의 存在라고 規定할 수 있을 것이다.

結論적으로 보면, 北韓政權은 北韓의 大衆을 最高權力機關인 黨中央委員會(即 金日成)가 意圖하는데로 思考하고 行動하는 定型 즉 <金日成을 목숨으로 死守>하는 定型화된 服從의 人間集團을 鑄造하기 위해 끊임없는 注入的 思想敎養과 組織的인 制度的 裝置를 통한 政治社會化에 모든 政策的 關心이 集中되었고 그럼으로써 大衆의 自發的 忠誠心과 積極的인 參與意識을 鼓吹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政治社會化를 통하여 金日成個人崇拜를 中心으로 한 偶像化政策은 더욱 加熟될 것이다. 이는 北韓政權이 그들이 政治的으로 指向하는 社會主義社會 내지 共產主義建設을 위한 革命을 強力히 추진하고 金日成 1人獨裁體制와 그의 永續化를 위한 族閥體制를 構築하기 위하여 모든 政策을 집중시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 Summary —

## A Study of Political Socialization in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 Relating to an Analysis of the Rodong Shinmun —

*Sung-joon Ko*

Some theorists of political socialization have pointed out basic assumptions: Among them, that citizens in different nations come to feel and behave differently toward their political leaders and structures, and that the various attitudes citizens have toward political life affect the ways in which the state operates. An examination of a communist state underscores the necessity of making an additional assumption whose history goes back to Rousseau: that the way in which the polity is conceived by its founders and leaders affects the character of the citizenship role, and therefore the nature, goals, and contents of political socialization. There is a good deal of difference between the amount and type of citizen involvement expected in a consensus democracy, and that required in a totalitarian dictatorship; there is an attendant difference in how carefully orchestrated are the efforts in these two types of systems to inculcate the norm of correct citizen behavior.

Political socialization receives greater attention and concern in communist society than in liberal democratic society. This preoccupation, in which traditionally the party was the sole source and the citizen a passive recipient of political values and the norms, has in some ways been strengthened more and more in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To the North Korean Marxists, the creation of the "New Communist Man" is a prerequisite of the building of the "New Socialist State". So they have depended on political socialization as legitimacy building and mass mobilization functions. Among agents of political socialization, they have utilized mass media as a strong political tool of building legitimacy and mobilizing the masses in revolution and



construction. According to the content analysis of the Rodong Shinmun, the official party paper in North Korea, the articles and editorials idolize Kim Il- Sung and stress economic construction for the most part.

This thesis attempts to trace and analyze political socialization in North Korea and describes its two functions. One, legitimacy-building; the other, societal mobilization. By analyzing the "Rodong Shinmun,"—editorials, articles, and slogans—this paper represents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role of mass media in the political socialization of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This paper consists of three sections; (1) a brief discussion of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political socialization in a communist state, (2) an analytical description of the function of political socialization—legitimacy building and the mass mobilization functions, (3) a descriptive analysis of the "Rodong Shinmun" as a powerful agent of political socialization in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